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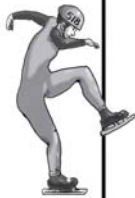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 내용으로 보아 가장 빠른 기록으로 인정받을 선수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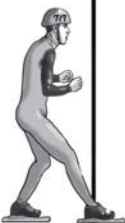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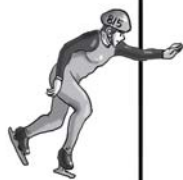
③



④



⑤



결승선

2. (물음)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등어는 부위에 따라서 고깃살의 색깔이 다르다.
- 고등어의 옆구리 쪽은 적색근보다 백색근이 더 많다.
- 고등어는 삼치보다 눈이 크고 몸 옆면의 무늬가 진하다.
- 고등어 고깃살의 색깔은 혈관의 발달 여부와 관계가 깊다.
- 고등어의 적색근은 지구력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물음) 강연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인간은 상호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군.
-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군.
- 인간의 지능은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군.
-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군.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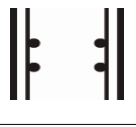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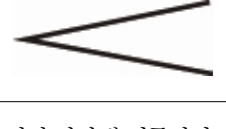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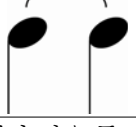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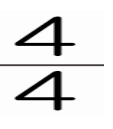
-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
- 학교 앞 도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매우 혼잡하다.
- 등교할 때 자가용의 이용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활용에 유리하다.

5. (물음) 두 토론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여학생은 통계 수치를, 남학생은 개인적 경험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여학생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학생은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 여학생은 감정적인 태도로, 남학생은 이성적인 태도로 상대의 의견에 대응하고 있다.
- 여학생은 직설적인 방법으로, 남학생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여학생은 상대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상대의 의견을 요약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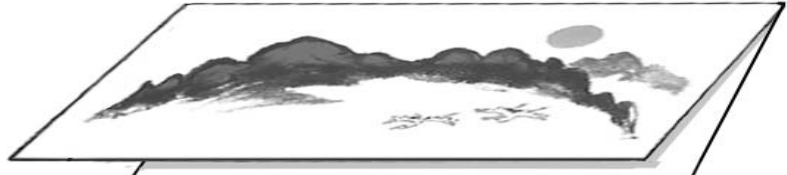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악보에 사용된 기호를 바탕으로 ‘학습 방법’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보 기호 의미	연상한 의미	구체화한 내용
	반복	→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복습을 한다. ①
되풀이하여 연주한다.		
	연장	→ 어려운 학습 단원과 쉬운 학습 단원을 적절하게 안배한다. ②
두세 배 길게 늘어 연주한다.		
	강화	→ 학습의 수준이나 정도를 점차 높여 간다. ③
점점 강하게 연주한다.		
	연계	→ 학습 내용이 유사한 단원은 연관 지어 학습한다. ④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음표를 잇는다.		
	규칙성	→ 계획표에 정한 대로 학습 시간과 양을 일정하게 지킨다. ⑤
악보에서 박자를 나타낸다.		

7. 연말을 맞이하여 가까운 이에게 연하장을 보내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감사의 마음을 담을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감각적 표현으로 계절감을 드러낼 것.

- ① 늘 고맙다, 친구야! 내년에도 우리의 푸른 우정 변함없이 이어가자.
- ②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갔네요. 아쉬움도 많지만,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렵니다.
- ③ 당신과의 인연은 제 기억 속에 따사로운 햇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 ④ 눈 내린 창밖을 바라보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짧은 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 ⑤ 하얀 눈이 내리는 12월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방황하는 저에게 환한 등대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신입생 환영회 문화의 개선’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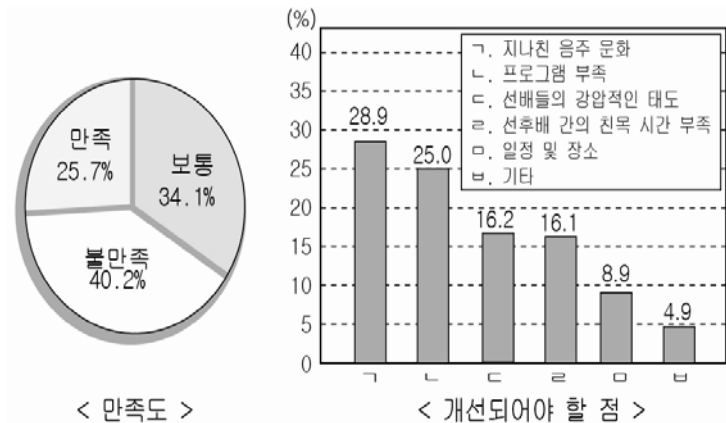
< 보 기 >

(가) 신문 보도 기사

최근 모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한 선배로부터 기합을 받던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사고로 인해 대학생들의 잘못된 환영회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신문

(나) 통계 자료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신입생 의식 조사)



(다) 인터뷰 자료

1. 신입생 환영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 그때뿐입니다. 교내 음주, 폭력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학칙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 ○○대학생
2. 우리 대학에서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를 재학생회에서 실시하여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선후배들 사이가 무척 돈독해진 계기도 되었죠. - △△대 총학생회장

- ① (가)를 활용하여 신입생 환영회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신입생 환영회의 개선 방향을 밝히고,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신입생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시해야겠어.
- ③ (다)-1을 활용하여 신입생 환영회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해야겠어.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선배들의 강압적 태도와 음주 문화가 신입생 환영회 관련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야겠어.
- ⑤ (나)와 (다)-2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신입생 환영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임을 제시해야겠어.

9. <보기>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얼마 전 나는 유명 등산가의 에베레스트 산 등정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 깊은 역경을 이겨낸 등산가의 용기와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 그래서 나는 등산가와 동행하며 그 여정을 카메라에 담아낸 촬영 팀의 숨은 노고에 큰 갈채를 보내고 싶다.

촬영 팀은 전문 산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 앞장서서 험한 산을 오르며 등정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 나는 그런 촬영 장비들을 추위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이 정상을 정복한 등산가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 일이겠지만, 어쩐지 나는 촬영 팀의 이런 수고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 ① ㉠은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술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꿔야겠어.
- ③ ㉢에는 문맥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등산가보다’라는 말을 넣어야겠어.
- ④ ㉣은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부사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일이므로’로 수정해야겠어.

10. <보기>는 ‘노인 요양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당국 및 요양 시설 담당자에게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및 보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노인 요양 시설의 현황

- 1.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
- 2.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II. 노인 요양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 가. 시설 및 종사 인력의 부족
- 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 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 ㉡
- 라. 이용자들의 시설에 대한 공공의식 부족 ㉢

2. 개선 방안

- 가. 재정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 및 종사 인력 충원
- 나. 수요자들의 요구 파악 ㉣
- 다. 시설 내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

III. 당국 및 요양 시설 담당자의 대책 마련 촉구 ㉤

- ① ㉠은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노인 요양 시설의 증가’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과 ‘II-2-다’를 맞바꾼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은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정한다.
- ⑤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을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촉구’로 수정한다.

11.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뒷갈망 일의 뒤끝을 말아서 처리함.

뒷바라지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

뒷시중 뒤를 보살피며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

뒤치다꺼리 ① 뒤에서 일을 보살피서 도와주는 일.

② 일이 끝난 뒤에 뒤끝을 정리하는 일.

-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사태를 ㉠ 뒷갈망할 도리부터 찾자.
- 엄마 ㉡ 뒷바라지 없인 혼자서 아무 일도 못할 아이로군.
- 편찮으신 할아버지의 ㉢ 뒷시중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 애들 ㉣ 뒤치다꺼리에 바빠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였다.
- 손님들이 떠나간 뒤 그녀는 방 안을 ㉤ 뒤치다꺼리하였다.

- ① ㉠은 ㉢과 달리 ‘마무리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잔심부름을 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돕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은 ㉤과, ㉡은 ㉣과 각각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 ㉢, ㉤은 모두 ‘보살피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체언+목적격 조사(을/를)’의 형태로 성립된다.

예) 나는 독서를 즐긴다. / 그는 책을 사랑한다.

- ㄱ. 그는 누굴 더 사랑할까?
- ㄴ. 나는 사과를 좋아해. / 나는 사과를 좋아해.
- ㄷ. 나는 너만을 좋아해. / 나는 너를 좋아해.
- ㄹ. 나는 영수와 만났다. / 나는 영수를 만났다.
- ㅁ.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① ㄱ : 목적격 조사가 ‘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 ② ㄴ :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는’이 쓰이기도 하는구나.
- ③ ㄷ :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보조사 ‘만’이 올 수도 있구나.
- ④ ㄹ :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
- ⑤ ㅁ :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구나.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근심이 하*길기에
꿈도 길 줄 알았더니
님을 보러 가는 길에
㉠ 반도 못 가서 깨었고나

새벽 꿈이 하 찌르*기에
근심도 짜를 줄 알았더니
근심에서 근심으로
끝간 데를 모르것다

만일 님에게도
꿈과 근심이 있거든
차라리 ㉡ 근심이 꿈이 되고 꿈이 근심이 되어라

— 한용운, 「꿈과 근심」

* 하 : 매우 많이
* 찌르, 찌르 : 짧은

(나) 까무러치듯 외로운 날빛이
서창(西窓)에 걸리고
홍홍한 황사바람 몇 날 며칠 부는데
㉢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굳게 닫힌 하늘에

복사꽃은 또 한 번 하얗게 떨어지고
깊은 밤 별들은 새벽빛 수틀 위에 자수(刺繡)로 뜨이는데,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청천벽력에라도 못 깨어날
깊은 잠이 드셨나요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
까무러치듯 캄캄하고 외로운 이 날에
순정한 마음의 바늘 끝에 뜨이는
아픈 사연 감추웁고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칠천지 원망을
사랑으로 불꽃으로 모두 오려서
당신 오신 날 밤
길 밝히는 ㉣ 연등(燃燈)으로 내걸리렸더니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 김종해, 「기다림」

(다) 님다히 消息息식을 아프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마음 둘 티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ㄴ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었디 보며
咫지尺척을 모르거든 千천里리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ㄴ의 가 빙 길히나 보자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딤 가고 빈 빙만 걸렸느니.
江江天천의 혼자 셔셔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息식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茅모簷檐 처운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半반壁벽靑靑燈燈은 늘 위하야 불갓느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力력盡진하야 꽃즘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玉옥ㄴ튼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ㅁ음의 머근 말슴 슬ㄴ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계聲聲의 잠은 었디 쉼뚝던고.
어와, 虛허事스로다. 이 님이 어딤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쏜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ㄴ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으로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② 시상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③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대상과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화자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별을 주제로 한 시가에서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주로 기원과 맹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기원과 맹세는 다양한 종결형으로 표현되며 이는 화자의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거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는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행동의 묘사로 드러나기도 한다.

- ① ㉠의 ‘-고나’에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의 ‘-어라’는 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의 ‘-나요’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바람을 행동의 묘사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리라’는 화자의 사랑의 맹세를 담고 있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적 대상을, ㉡은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 ② ㉠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은 암울한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은 화자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은 상상에 몰입하게 한다.
 - ④ ㉠은 화자가 갈등하는 원인이 되고, ㉡은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고, ㉡은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동지(冬至) ㅅ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시조

- ① (가)와 <보기>에는 모두 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보기>는 (가)와 달리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보기>는 (가)와 달리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 ⑤ <보기>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7.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까무러치듯’에서 ‘까무러치듯 캄캄하고’로 시구를 변화시켜서 기다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군.
 - ② ‘외로운 날빛’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복사꽃은 또 한 번 하얗게 떨어지고’에서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에서 운명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바늘 끝에 뜨이는 / 아픈 사연 감추옵고’에서 아픔을 견뎌내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18. (다)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공간	방해물	상황	화자의 정서
눅흔 피	구름, 안개	일월을 볼 수 없음	막막함
물ㄴ	브람, 물결	(ㄱ)	외로움
茅모簷첨 춘 자리	계성	꿈을 꾀	(ㄴ)

- | | (ㄱ) | (ㄴ) |
|---|---------|-------|
| ① | 뱃사공이 없음 | 조급함 |
| ② | 빈 배만 걸림 | 안타까움 |
| ③ | 기운이 다함 | 애뜻함 |
| ④ | 눈물이 쏟아짐 | 절박함 |
| ⑤ | 목이 멎 | 섬섬함 |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행동을 더 자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일까?

에드워드 데시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그 중 한 집단은 퍼즐을 풀 때마다 보상을 주었고, 나머지 한 집단에게는 퍼즐을 풀어도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퍼즐을 몇 번 풀게 한 후에 학생들을 실험실에서 내보내고 다시 퍼즐을 할 기회를 주었다. 두 집단의 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이 퍼즐 놀이에 많이 참여했을까? 보상 없이 퍼즐을 풀었던 집단의 학생들은 대부분 퍼즐 놀이를 한 반면, 보상을 받고 퍼즐을 풀었던 학생들은 퍼즐 놀이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실험은 다른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변형되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는 ㉠ ‘과잉정당화 효과’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과잉정당화 효과란 자기 행동의 동기를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이러한 과잉정당화 효과는 데시의 실험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다. 다릴 뱀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상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보상이 없는데도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잉정당화 효과가 잘 일어날까? 돈이나 음식, 혹은 상품 같은 물질적인 보상이 과잉정당화 효과를 잘 일으키는 반면, 칭찬이나 관심과 같은 심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보상은 과잉정당화 효과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일을 수행한 것만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과잉정당화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성취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그것이 물질적이라 할지라도 과잉정당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취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상은 그것이 비록 칭찬 같은 비물질적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잉정당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잉정당화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보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친 보상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과잉정당화 효과는 지나친 보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

19. 위 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보상은 체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보상이 반드시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과잉정당화 효과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보상이 주어질 때 강화된다.
- ④ 과잉정당화 효과는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 ⑤ 물질적인 보상은 비물질적인 보상보다 과잉정당화 효과를 더 잘 일으킨다.

20. 위 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 실험의 예외적인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은 아닌가?
- ② 과잉정당화의 효과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한 것은 아닌가?
- ③ 정신적 보상보다 물질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 ④ 보상의 정도가 지나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⑤ 보상과 행동에 관한 사람들의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영수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즐겼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컴퓨터 게임에 몰입했고, 소질도 있어서 결국 프로게이머가 되었다. 프로게이머가 된 후,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승률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생기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의 결과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게임을 할 때 느꼈던 즐거움은 점차 사라졌다.

- ① 컴퓨터 게임을 지나치게 반복하다 보니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 ②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 ③ 돈을 벌기 위해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 ④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이 같이 주어졌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자 게임에 대한 내적 동기가 약화된 것이다.

22. ㉠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담은? [1점]

- 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②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③ 제사보다 젓밥에 정신이 있다.
- ④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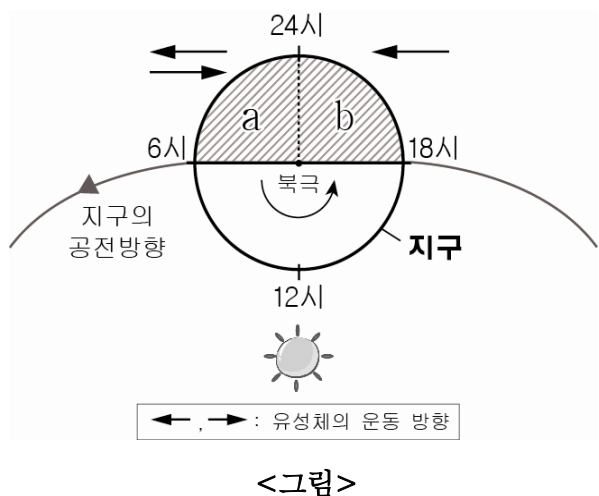
우주 공간을 떠도는 티끌, 먼지, 작은 암석 파편 등인 유성체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빠른 속도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것을 유성(流星)이라고 한다.

유성은 산발 유성과 유성우(流星雨)로 나눌 수 있다. 산발 유성은 우주 공간에 떠 있던 유성체가 우연히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온 것으로, 일정한 방향이나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떨어지며 시간 당 평균 5~10개 정도가 관측된다. 유성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유성체가 무리 지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수많은 유성들이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현상으로, 이것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유성우는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는 혜성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혜성은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도는 천체로, 얼음과 먼지 티끌, 암석이 섞인 덩어리이다. 혜성이 태양 근처를 통과하게 되면 태양열에 의해 얼음 성분들이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 꼬리가 만들어진다. 이 꼬리는 먼지 티끌 이루어 혜성의 궤도에 흩어지며 수년 이상이 흘러도 그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가 공전을 하며 매년 먼지 티끌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속의 먼지나 파편들이 유성우로 쏟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 76년마다 태양을 찾아오는 핼리혜성의 궤도와 지구 궤도는 두 지점에서만 교차하는데, 그 중 하나에서 에타 물병자리 유성우가, 다른 하나에서는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발생한다.

유성우를 잘 관찰해 보면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뿔어나오듯이 보인다. 유성은 모두 대기권으로 나란히 들어오지만 착시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유성우가 비롯되는 그 지점을 복사점이라 부르며, 유성우의 이름은 이 복사점이 위치한 별з리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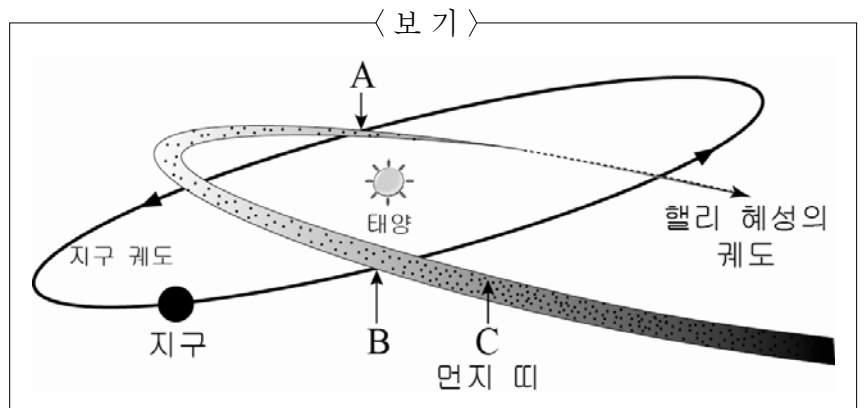
그러면 유성우가 잘 관찰되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일까? 유성우는 초저녁보다는 자정이 지나 동트기 전에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정이 지나면 관측자가 있는 지역 'a'가 지구 공전 방향의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 위치에서는 지구의 공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유성체는 속도에 관계없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고, 지구의 공전과 운동 방향이 같은 유성체는 지구의 공전 속도(초속 30km)보다 빠르지 않을 경우 지구와 충돌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유성체가 빠른 속도로 지구에 진입하게 되고, 그만큼 대기와의 마찰이 심해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유성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정 이전의 'b'에는 지구의 공전과 운동 방향이 같으며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유성체만이 지구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유성의 수가 적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산발 유성은 특정한 시기에 대기권으로 떨어진다.
- ② 유성우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 ③ 우주 공간을 떠도는 먼지, 작은 암석 파편 등을 유성체라 한다.
- ④ 복사점이 오리온 별자리에 있으면 오리온자리 유성우라고 부른다.
- ⑤ 유성이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뿔어나오듯이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 때문이다.

24. <보기>는 지구와 핼리혜성의 궤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발생한다면, B에서는 에타 물병자리 유성우가 발생하겠군.
- ② C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영향을 받아 그 위치가 변하겠군.
- ③ C는 태양열에 의해 얼음 성분들이 기체로 변하면서 발생하겠군.
- ④ 지구가 A와 B를 통과할 때 지구에서는 유성우의 복사점을 관측할 수 있겠군.
- ⑤ 지구가 A와 B를 통과할 때 C 안의 물질들이 유성우로 쏟아지겠군.

25. 위 글을 바탕으로 <그림>의 'a'에서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경우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유성체의 운동 방향	유성체의 속도 (기준 : 지구의 공전 속도)
ㄱ	같은 방향	느림
ㄴ	같은 방향	빠름
ㄷ	반대 방향	느림
ㄹ	반대 방향	빠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가족들의 희생 덕분에 어렵게 취직했지만 법에 어긋나는 상부의 지시에 불복했다가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편 갑자기 가출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나는 어릴 적에 떠났던 고향에 간다. 거기서 아버지가 만취당을 되찾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사실을 알게 되고, 고향집이었던 만취당이 농공 단지를 만들기 위해 헐리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나는 이장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와 신발을 꿰었다. 길 안내를 하겠다는 이장을 억지로 떼놓다시피 하고 그가 일러준 대로 구관장 골목을 지나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 십 분 쯤 산길을 걸어 이마며 겨드랑이에 땀이 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장의 얘기대로 아버지는 산중턱의 ㉠ 너럭바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아버님’을 가쁜 숨에 얹어 연발했으나 아버지는 힐끗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산 아래로 눈길을 박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가 섰어도 역시 그 눈길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벌써 술에 많이 취한 모양이었다. 나도 하릴없이 아버지처럼 산 아래로 눈을 주었다. □자 꼴의 ㉡ 옛날 기와집 한 채가 삼태기에 담긴 듯 산자락에 싸여 있었고 그 앞에 펼쳐진 논 밭을 지나면 국도를 끼고 폭넓게 흐르는 냇물이 있었다. 풍수지리에 캄캄한 나였으나 좋은 집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애야, 난 어떻게 죽어야 하니? 선조 대대로 물려온 집을 지키지 못했으니…….”

아버지의 말이 축축하게 젖으며 끝을 잃고 말았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 명당에 공장을 세우다니…….”

“이제 그만 잊으시라니까요.”

“이 녀석아, 난 니가 처신만 잘했어도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았을거. 저 집에서 손자만 볼 수 있게 된대두 이렇게…….”

“글쎄 그만두시라니까요. 어서 내려가셔서 아침 잡수세요. 지금 이장 집에다 아침을 시켜 놓고 오는 길이에요.”

“야, 이 녀석아, 넌 지금 아가리에 밥이 들어가나?”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어떻게 아버지를 위로할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궁리가 나서질 않았다. 아버지의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나도 만취당을 되찾지 못하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아까 한 학생에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그 얘기가 내게 힘을 주었다.

“아버님, 아무리 집터가 명당이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장 폐수 때문에, 농약 때문에 왜가리도 삼

[A] 년 전부터 날아들지 않는대요. 집터만 좋으면 뭘해요. 새도 날아오지 않고 물고기도 씨가 마르는 곳인데 아무리 집터가 좋아도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올 호통을 기다렸으나 정작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한동안 그렇게 침묵만 고집하고 있던 아버지가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말이다, 이걸루다 ㉢ 그 사람한테 뺨을 썩라.”

아버지는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농협이 ㉣ 적금통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누구한테 뺨을 쓰란 말입니까?”

“인석아, 니 모가지를 틀어쥐고 있는 그 사람 말여! 돈 아까운 생각일랑 말란 말여. 그라구 그게 모자라면 또 돈을 만들어줄께. 어제 저 집에 가서 만취당 편액을 떼놔다. 서예학원 하는 ㉤ 느 아저씨한테 전할 넣어 봤드니 자기 기억으루는 그게 한석봉 글쎄 새긴 것으로 아는데 만약 자기 기억이 맞는다면 그것두 꽤 돈이 된다드라. 그것두 돈으루다 바꿔 널 줄 테니까 지발 모가지만이라두 붙어 있게 하란 말이여 내 말 알겠냐?”

나는 옳다구나 싶어 속으로 쾌재를 올렸다. 썩은 물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야. 끝까지 싸워보는 거야. 그러다 모가질 당하면 구멍가게라도 차리는 거야. 감투 때문에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썩는 거야. 만취당 편액을 간판으로 내걸고 술장사라도 하는 게 낫지 만취당 주점이라, 거 참 근사하구나!

“인석아, 애비가 말하는데 왜 웃는겨?”

나는 나도 모르게 흘리던 웃음을 황급히 굳히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만취당 편액은 팔지 마십쇼. 그것만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조상님께 면목이 서겠습니까! 제발 그것만은 잘 보관했다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그자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껏 흥분되어 있었다.

“아버님, 어서 내려가세요. 밥상을 봐놓고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꼭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신바람나게 거짓말을 해댔다. 여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기억이 없었다. 나의 그런 태도에 아버지도 약간 힘이 나는 모양이었다.

내 부축으로 일어난 아버지가 다시 산 아래로 눈길을 보냈다. 그 눈길을 따라간 내 눈에 ㉥ 푸른 솔숲이 보였다. 국도변 냇가에 펼쳐진 그 솔숲은 주위 잡목들의 누렇게 시든 가을잎 때문에 한층 더 청청하게 보였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내 방에 걸린 액자의 ‘지지송간반(遲遲松澗畔) 울울함만취(鬱鬱含晩翠)’라는 시구가 떠올랐다. 저 시냇가의 소나무는 더디고 더디게 자라지만 무성하고 늦도록 푸르르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며 저 소나무 숲을 조성한 분이 바로 만취당의 당호를 지은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김문수, 「만취당기(晩翠堂記)」

2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특정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만취당기’는 세 개의 작품 감상 고리가 있다. 우선 한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한 감상이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살아온 삶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사람이 사는 현장인 현실의 모습을 통한 감상이다. 이를 통해 물질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자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감상이다. 이것으로 삶과 현실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더 나아가 전환기 한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만취당’을 소재로 하여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만취당’과 관련된, 아버지와 ‘나’의 대화를 통해 환경이 오염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만취당’이 농공 단지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여 산업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만취당’을 되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와 이 사실에 무관심한 아들을 통해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⑤ ‘만취당’에 있는 편액을 팔면서까지 아들이 현실에 타협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려는 아들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발화자는 현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과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② [A]의 발화자는 상대방의 논리적 이성애 호소하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③ [A]의 발화자는 긍정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A]의 발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상대방에게 처신 방법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 ⑤ [A]의 발화자는 상대방에게 동조하듯이 말하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상대방에게 훈계하듯이 말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내면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다.
- ② ㉡: ‘아버지’의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③ ㉢: ‘나’가 현실 세계에서 맞서려는, 직장 내의 부정적인 인물이다.
- ④ ㉣: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소재이다.
- ⑤ ㉤: ‘나’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30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자유 연상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를 연상적 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연상적 관계에 속하는 의미 관계로 포용관계와 공유관계가 있다.

한 단어의 의미 속에 다른 단어의 의미가 본디부터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포용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동사 ‘걷다’는 ‘발’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걷다’의 의미 속에는 애초 ‘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용하고 있는 의미 관계이다.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함께 쓰이는 언어적(連語的)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령 ‘아기는 엄마의 치마를 손으로 잡았다.’에서 ‘잡다’와 ‘손’이 포용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이 문장 속에 쓰임으로써 언어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은 언어적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 가운데 의미가 포용된 단어를 생략하여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손으로’를 쓰지 않아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잡다’ 속에 이미 ‘손으로’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포용관계가 특정의 품사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와 명사 사이에서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보다 : 눈’이나 ‘굽다 : 불’은 ㉠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실행에 사용되는 기관 또는 도구(재료)와의 관계로 결합된 것이며, ‘날다 : 새’는 ㉡ 어떤 행위와 그 주체의 관계로 통합된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단어가 어떤 의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공유관계라고 한다. 이때의 두 단어 사이에는 동의관계 또는 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아버지, 아저씨, 총각’은 서로 동의관계 또는 하의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의미상 어떤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남성]이라는 의미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고(思考), 사색(思索), 사유(思惟)’는 모두 [생각]의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공유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 ② 포용관계는 특정한 품사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관계이다.
- ③ ‘사고’와 ‘사색’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관계라 볼 수 있다.
- ④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⑤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함께 쓰이는 언어적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과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 | | |
|------------|------------|-----------|
| a. 던지다 : 손 | b. 쓰다 : 연필 | c. 짓다 : 개 |
| d. 자르다 : 칼 | e. 흐르다 : 물 | f. 피다 : 꽃 |

- | | | |
|---|---------|---------|
| | ㉠ | ㉡ |
| ① | a, b, d | c, e, f |
| ② | a, c, e | b, d, f |
| ③ | b, c, f | a, d, e |
| ④ | b, d, f | a, c, e |
| ⑤ | c, d, e | a, b, f |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K사에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한다고 하자. 이 주문으로 인해 K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정부 지출액만큼 증가하므로, 이 회사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생산을 늘릴 것이다. K사도 우리 경제 주체의 일부이므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K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 그 효과는 다른 부분에 파급된다. 정부가 K사에 지출한 10억 원이 그 제품을 생산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면 이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이들이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그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참여한 사람의 소득이 되고 이것은 다시 소비지출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부가 K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승수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승수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출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 현실에서 보게 되는 승수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크기보다 작을 수 있다. 정부지출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더 커져 소비의 증가폭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 변동으로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소비가 국내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한다.

* 총수요 :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가게,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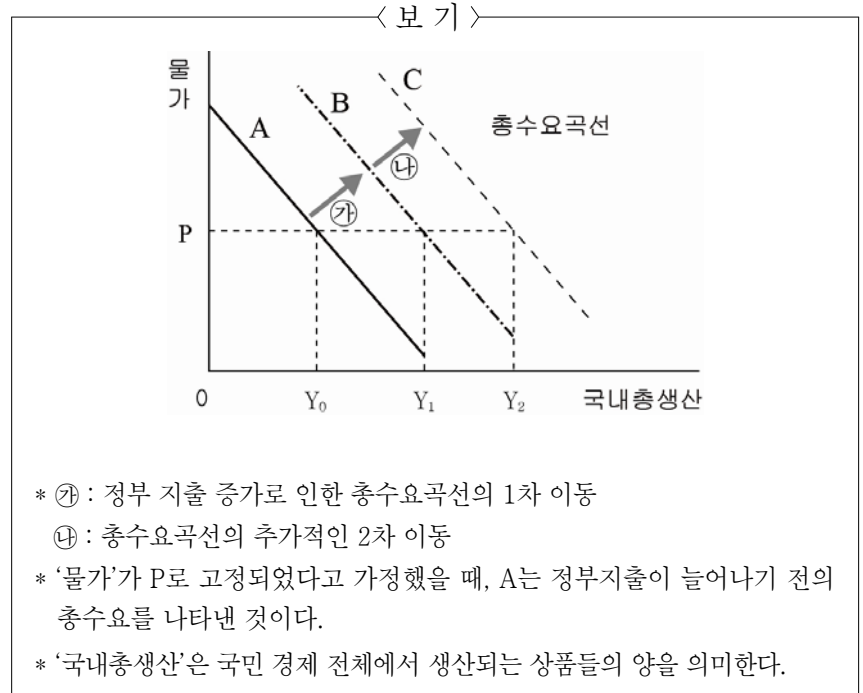
32. 위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효과
- ② 승수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③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
- ④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
- ⑤ 승수효과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나는 이유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②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현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⑤ 국내외의 사례를 활용하여 현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34. <보기>는 승수효과와 총수요곡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부가 지출을 늘려 총수요가 그 금액만큼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 ② 총수요가 ‘A’에서 ‘C’만큼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
- ③ 정부지출로 인한 가게와 기업의 연쇄반응으로 총수요곡선은 ‘B’에서 ‘C’로 이동한다.
- ④ 정부지출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국민들이 지출할 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부지출이 10억 원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의 이동 폭은 ‘㉠’과 ‘㉡’를 합쳐 10억 원만큼 늘어난다.

35.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 ② 수입품에 대한 사람들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 ③ 새로운 무역 대상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④ 이자율이 낮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
- ⑤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수담수화’란 해수에 ㉠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말한다. 담수화의 방식 중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발생한 수증기를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담수화 방식이며 지금도 세계 담수화 생산 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증발식 담수화 기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단 플래시 방식’인데, 이것은 ㉡ 병렬식으로 이어진 각각의 증발실에서 이루어지는 증발과 응축을 통해 담수를 얻는 기술이다. 다단 플래시 방식에서 담수화의 기본적인 과정은 크게 3단계로 ㉢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수가 해수관을 따라 이동하고 가열되는 단계이다. 해수관은 각 증발실의 내부와 히터를 거쳐 첫 증발실로 다시 연결되는데, 이 해수관을 따라 이동하던 해수는 증발실 내부의 열에 의해 점차 온도가 상승한다. 그 후 히터에 의해 가열되어 해수는 그 온도가 더욱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히터를 거쳐 뜨거워진 해수가 해수관을 따라 증발실 내부로 분출되면서 증발이 이루어져 해수 중의 담수 성분이 분리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플래시 증발’의 원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액체에 가해지던 ㉣ 압력이 갑자기 큰 폭으로 낮아지면 액체의 끓는점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순간적인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플래시 증발이라 한다. 즉, 좁은 해수관을 흐르던 해수가 상대적으로 넓은 증발실 내부로 분출되면서 압력 차에 의해 해수의 일부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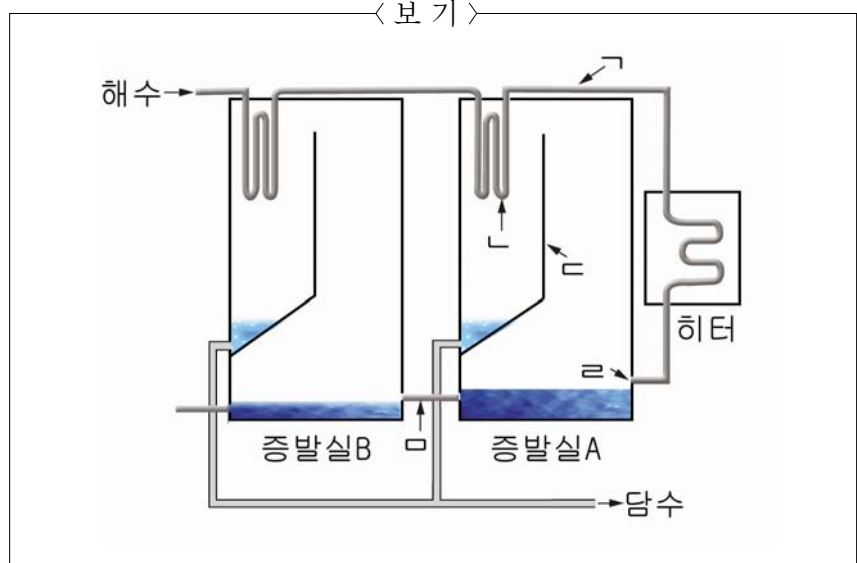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증발실 내부의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단계인데, 이 과정을 통해 담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플래시 증발’에 의해 발생한 수증기가 증발실 내부를 ㉤ 통과하는 해수관의 표면에 닿게 되면 액체로 응축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가 흐르고 있는 해수관의 표면에 열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후 응축된 담수는 증발실 내부의 격리된 막을 통해 따로 모아져서 증발실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증발실 내부에 남은 해수는 관을 통해 다음 증발실로 이동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반복하게 된다.

증발실 한 개를 1단으로 볼 때, 보통 ‘다단 플래시 방식’은 20단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담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첫 증발실을 통과한 이후에는 점차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플래시 증발이 계속 ㉥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증발실에서 다음 증발실로 갈수록 증발실마다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야만 한다. 또한 각 증발실에서 다음 증발실로 해수가 이동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36. 위 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 ① 가장 오래된 담수화 방식은 무엇인가?
- ② 다단 플래시 담수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③ 증발식 담수화 기술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 ④ 증발실마다 압력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증발실로 이동하는 담수의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7. <보기>는 ‘다단플래시 담수화 장치’ 구조도의 일부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지점의 해수보다 ㄴ지점의 해수가 염분의 농도가 더 진하다.
- ② ㄴ 속의 해수는 증발실 내부의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다.
- ③ ㄷ은 ㄴ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담수를 따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 ④ ㄹ에서는 끓는점이 낮아져 해수의 응축이 발생한다.
- ⑤ ㄹ의 해수는 압력이 더 낮은 증발실 B로 이동한다.

38. ㉣과 유사한 일상생활 속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탄올은 물에 잘 섞이는 반면에 기름은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 ② 높은 산은 기압이 낮아서 평지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
- ③ 옷장 속 나프탈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작아진다.
- ④ 사이다 병의 마개를 열면 사이다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 ⑤ 향수 냄새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멀리 퍼져나간다.

39.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녹아
- ② ㉡ : 번갈아가며
- ③ ㉢ : 나눌
- ④ ㉣ : 지나는
- ⑤ ㉥ : 일어나게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전과 장씨의 딸 숙향은 다섯 살 때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져 장 승상 댁 양녀로 성장하지만, 사향의 흥계로 쫓겨나 여러 위기를 겪은 뒤, 마고할미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숙향은 천상 선녀로 놀던 전세에서 꿈을 꾸곤 후 그것을 수로 놓는다. 이 수를 본 병부상서 이위공의 아들 선(이랑)은 자신의 꿈과 같은 데 놀라 숙향을 찾는다. 선은 엄한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고모인 여부인의 주관으로 숙향과 가연을 맺는다.

이때에 상서가 국사에 매이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더니 상서의 부인이 선의 행동거지가 수상함을 보고 하인들을 힐문하였다. 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여 사실대로 아뢰니 부인이 크게 놀라 즉시 상서께 기별하였다. 상서가 또한 통분하나, ‘누님께서 주혼하고 선이 몹시 사랑한다 하니 달리 금치 못하리라.’ 하고 낙양 태수에게 기별하되,

“동촌 술파는 할미집에 숙향이라는 계집이 가장 요악하다 하니 잡아다가 죽이라.”

하였다. 선은 고모집에 있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낙양 태수 김전이 위공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풀어 숙향을 잡아오니 아무 것도 모르고 잡히어 관전에 이르니 태수가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계집이기에 위공 댁 공자를 고혹(蠱惑)하였느냐? 이제 쳐 죽이라는 기별이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호령하여 형틀에 매고 치려 하니 남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 소녀는 다섯 살 때 피란 가던 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며 다니다가 할미집에 의지하였는데, 이랑이 빙례*로 구혼하움에 상하체면에 거스리지 못하여 성혼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첩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하고 치기를 재촉하니, 숙향이 화월같은 용모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눈물이 땀땀하여 슬피 우니 그 경상*을 차마 못 볼러라. 집장사령이 매를 들어 치려한 즉 팔이 무거워 들지 못하였다. 태수가 크게 노하여 다른 사령으로 갈아 치웠으나 또한 매끝이 땅에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니 태수가 괴히 여겨 말하기를,

“㉡ 필시 애매한 사람이리라. 그러나 상서의 기별임에 나로서는 어찌지 못하겠다.”

하고 동여매고 물에 넣으려 하였다. 이때 태수 부인인 장씨의 꿈에 숙향이 앞에 와 울며 말하기를,

“㉢ 부친께서 저를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부인이 놀라 깨어 시비로 하여금,

“상공이 무슨 공무를 보시는가 알아 오라.”

하였다.

시비가 되돌아와 말하기를,

“상공이 이 상서의 영으로 그 댁 며느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니 장씨가 놀라 급히 태수를 청하여 말하기를,

“여아를 잃은 지 십여 년에 한 번도 꿈에 보이는 일이 없더니 아까

몽중에 숙향이 울며 여차여차하오니 매우 이상합니다. 오늘 보시는 공무는 어떤 일입니까?”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이 위공의 아들이 숙향에게 고혹되어 부모를 속이고 장가들었음에 제게 기별하여, ‘죽이라’ 하기에 이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몽사가 이상하고 이 위공의 며느리가 또한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 근맥을 물어 보겠습니다. 일을 잠시만 미루어 주십시오.”

하였다.

태수가 이에 응낙하고 하령하여, ‘가두라’ 하니 숙향이 약하디 약한 몸에 큰 칼을 쓰고 누수만면*하여 옥에 들며 말하기를,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니, ㉤ 옥줄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 “낙양 옥중이다. 내일은 죽을 것이니 불쌍하구나.”

하거늘 숙향이 헤아리되, ‘이랑은 내가 죽는 것을 모를 것이니 소식을 누가 전하리오?’ 하고 애통해 하더니 날이 밝음에 문득 청조(靑鳥) 날아와 울거늘 숙향이 적삼 소매를 떼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편지를 써 새의 발목에 매어주며, ‘이랑께 전하라.’ 경계하니 청조가 두 번 울고 날아갔다.

이날 선이 고모 집에서 자는데, 문득 선의 고모가 잠결에 대경대로하여 말하기를,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 또한 길렀음에 주혼하였던 것인데,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어찌 이렇듯 걱정을 끼칠 수 있는가?”

하거늘 선이 고모를 흔들어 깨웠다. 고모가 정신을 차려 선에게 꿈 얘기를 이를 즈음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선의 앞에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목에 한 봉물이 매어 있는지라 끌러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 박명 첩 숙향은 삼가 글월을 이랑 좌하에 올립니다. 첩이 전생 죄를 차생(此生)에서 피하지 못하여 속절없이 낙양 옥중의 흠이 되니 죽기는 싫지 아니하나 낭군을 다시 못보니 지하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비읍건대 낭군은 천첩을 생각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保重하십시오.”

하였거늘, 선이 이 편지글에 크게 놀라 그 글을 고모에게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 함께 죽고자 하니 고모가 말하기를,

“내 몽사와 같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그러나 경솔히 굴지 말고 할미집에 사람을 시켜 자세히 알아오라.”

하며 일변으로 상서집 노복을 불러 물으니 노복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 상서 부인이 아시고 상서께 기별하여 여차여차한 것입니다.”

하거늘, 고모가 대로하여 말하기를,

“내 주혼함을 업수이 여기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 친히 경성으로 올라가 상서를 만나 결단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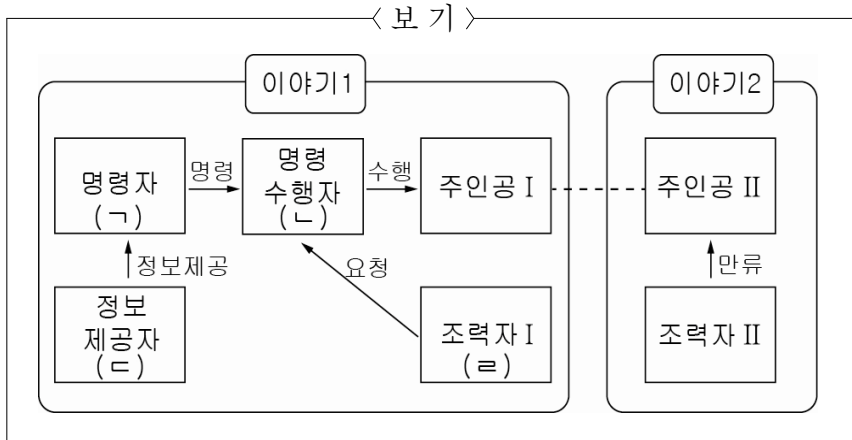
하고 치행하여 경성으로 갔다.

* 빙례(聘禮) : 혼례(婚禮), 혼인의 예절

* 경상(景狀) : 좋지 못한 몰골

* 누수만면(漏水滿面) : 눈물이 온 얼굴에 가득함

※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40번과 4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0. 이야기1의 (ㄱ)~(ㄹ)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태수 | 사령 | 하인들 | 태수 부인 |
| ② | 태수 | 사령 | 상서 부인 | 옥졸 |
| ③ | 상서 | 태수 | 상서 부인 | 태수 부인 |
| ④ | 상서 | 태수 | 상서 부인 | 옥졸 |
| ⑤ | 상서 | 사령 | 하인들 | 태수 부인 |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주인공 I 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② 명령 수행자는 조력자 I 의 요청을 수용하여 명령 이행을 잠시 유보하고 있다.
- ③ 정보제공자는 명령자에게 주인공 I, II 가 결혼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조력자II는 주인공II의 행위를 자제시키고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고 있다.
- ⑤ 이야기1의 상황을 이야기2의 주인공II와 조력자II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청조’가 담당하고 있다.

42.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강독사’라고 한다. <숙향전>은 실제 강독사에 의해 연행되었던 작품으로, 이야기 상황에 따라 숙향이 살아온 삶의 행로가 인물의 발화를 통해 요약·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강독사가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독을 할 때, 중간에 듣거나 줄거리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전의 서사 과정을 요약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보기>를 ㉠의 상황에서 독자가 보인 반응이라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쫓쫓, 이제 숙향은 ()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① 백척간두(百尺竿頭) ② 풍전등화(風前燈火)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④ 명재경각(命在頃刻)
 ⑤ 누란지세(累卵之勢)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117. 마을 넓은 집(밤)

㉠ 병자들이 여기저기 눕고 그 사이를 침과 뜸뜨며 다니는 준, 땀 땀는다.

해설 한나절만 더 병자를 보아주고 간다던 허준은 한 사람만 다시 한 사람만 보아주리라며 이틀째 밤을 맞이한다.

최초의 여인이 밥상 들고 나타나며 안타까이,

여인 이렇게 차일피일허심 어찌유.

허준 (초췌한 모습. 그러나) 예서 한양이 삼백칠십 리 하루 백 리씩만 가면 과거 날까지 아직 나흘이 있는즉.

춘노 그렇기루. 하루 백 리 썩이야. 어찌 갑니까 저녁이나 자시구 어이 떠나시오. 이젠.

허준 차마 버리고 갈 수 없는 병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벌써 병자들께 다가간다)

S#118. 같은 집

날이 새는 하늘. 낮이 되고 다시 밤이 되는 사이.

허준(E) 팬찮습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더 결과를 보아 드리고.

촌노(C)그럼 하루에 백오십 리씩 가야 한다는 결론이라구요.

허준(E)갈 수 있겠죠.

<중략>

S#131. 유의태의 방

탕! 면상을 손바닥으로 갈기는 유의태. 그 앞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피는 장쇠. 반항적인 도지의 눈.

유의태 못난 놈. 못난 놈. 그걸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징 치구 복을 울리며 나는 등제를 했읍네.

도지
장쇠 허지만 서방님이 허준이 놈과 함께 그 마을에 갔다면 일이 이렇게

잘 되었겠습니까. ㉠ 허준이처럼 낙방올시다.

유의태 네 놈은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은즉!

장쇠, 도망치듯 나간다.

유의태 의원은 영달하는 길 아니고 의원은 돈버는 직업두 아니니라. 영달 꿈꾼다면 중국말 열심히 배워 역관이라도 될 것이오. 돈버는 게 소원이거든 장사꾼으로 풀릴 일. 의원은 병자를 보살피는 게 소임이다. 그것이 첫째니라.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의원의 소임은 그것뿐.

도지
유의태 현대 허준이는 가던 길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병자

를 보살피는데 유의태의 자식이! 바로 내 자식이! ㉡ 병자는 뒷전이고 단양팔경 구경하며 한양에 올라가.....

도지
유의태 그래서 따낸 이 첩지*(도지가 바친 비단 주머니를 친다)가

그토록 자랑스럽느냐. 못나고 못난 놈.

도지 (첩지 움켜잡고 일어선다) ㉢ 아버님 말씀이 일견 옳은 듯 하오나 아버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이긴 거라구요!

유의태
도지 이 첩지만 있으면 평생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조선팔도 방방곡

곡 어딜 가나 인정되는 바이웁고 소자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유의태 암! 그것으로 족해야지. 더 이상 바랬다간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복이니 어찌 화를 입지 않으리.

벌컥 열고 들어오는 오씨.

오씨 무어라구요. ㉣ 아니 그 고생고생 끝에 성공해 온 자식에게 애썼다 칭찬은커녕 악담을 하시오니까.

유의태 (O.L.) 악담도 귀담아 들으면 약이오. 나가 있으란 밖에!

오씨 어째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로 의원은 무슨 흠 파먹구 산답니까. 침놓아주고 대가 받는 건 웅당한 보순 계구 약 지어주구 돈 받는 건.

유의태, 눈.

오씨, 숨 삼긴 채.

유의태 흠 파먹을 때 흠 파먹더라도 봐줘야 할 병자는 봐줘야 하오. 그게 의원이오! 의원이란 그런 것이오.

* 첩지 : 오품관 이하 관원에게 인사에 관한 명령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

- 이은성, 「집념」

44. ㉠~㉣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준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 안타까웠을 것이다.
- ② ㉡ : 허준의 낙방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을 것이다.
- ③ ㉢ :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 ④ ㉣ :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 ⑤ ㉣ :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질책하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45.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 보편타당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한 인물의 삶의 자세를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의’와 대립하여 나타난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는 부당함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 ‘부당함’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불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 ① 촌노는 허준의 행위에 감사하며 그를 염려하고 있다.
- ② 장쇠는 유의태의 호통에 의견을 끝까지 내세우지 못했다.
- ③ 도지는 병자를 돌보기보다는 첩지라는 현실적 목적을 추구했다.
- ④ 허준은 과거 날짜가 임박했음에도 무리하게 환자를 돌보았다.
- ⑤ 유의태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중요시했다.

4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17에서 병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허준의 모습은 분장으로 사실감 있게 표현해야겠어.
- ② S#117에서 병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해야겠어.
- ③ S#118에서 카메라 촬영 기법을 통해 아침에서 밤으로 변하는 시간의 경과를 빠르게 보여주어야겠어.
- ④ S#131에서 어조 변화를 통해 유의태의 심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⑤ S#131에서 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도지의 반항적인 심리를 나타내야겠어.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미술이란 공공(公共) 공간에 있는,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이러한 공공미술 중 공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공간에 설치되는 미술을 ‘장소 속의 미술’이라고 한다. 장소 속의 미술에서의 공간은 비어 있는 공백이고, 미술을 통해야만 비로소 채워지고 의미화 된다. 그 속에 있는 자연과 사람도 주변에 불과하며 작품만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소 속의 미술은 미술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 도시들은 후기 산업경제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술 작품을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때 미술 작품의 선정 기준은 작품의 규모와 작가의 명성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미술 작품들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이러한 장소 속의 미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탄생한 것이 ‘장소 지정형 미술’이다. 이는 장소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공 공간을 위해 설계된 미술을 의미한다. 또한 장소 지정형 미술의 작가들은 공간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담는 곳으로 보며, 미술은 그런 공간의 맥락을 살리는 매개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지정형 미술에서의 공간은 미술의 배경이나 그 하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장소 지정형 미술에서의 대중은 단순한 ‘관람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자체와 공간에 조성된 미술을 즐기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시카고의 밀레니엄 공원에 설치된 애니쉬 카푸의 <구름 문 조각>을 들 수 있다.

옆의 사진을 보면 공원에 설치된 작품이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시카고의 고층 건물과 공원의 풍경, 작품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사람들은 작품에 비친 주변 광경의 파노라마를 자신의 모습과 함께 보며 작품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작품을 즐긴다. 여기에서 작품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작품을 즐기는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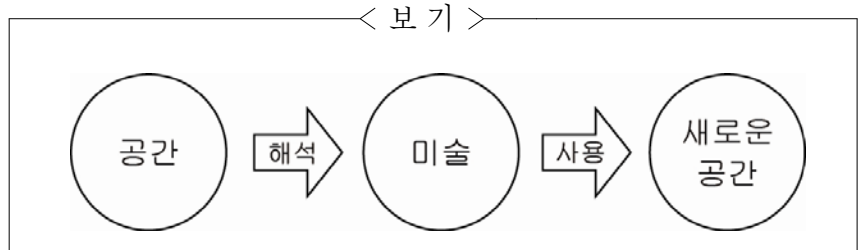
<구름 문 조각>

이처럼 장소 지정형 미술은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진정한 의미의 ‘공간’을 만들고, 미술 또한 진정한 ‘공공미술’이 되는 것이다. 즉, 장소 지정형 미술은 공간과 미술 작품, 대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해내는 예술인 것이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밝히며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48. <보기>는 ‘장소 지정형 미술’이 공공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소 지정형 미술에서는 ‘공간’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② 공간에 대한 ‘해석’ 과정의 유무는 장소 속의 미술과 구분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 ③ ‘미술’ 작품은 공간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④ 대중이 미술을 즐기고 ‘사용’함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 ⑤ ‘새로운 공간’은 공간, 미술, 대중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49.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뉴욕 연방광장에 설치되었던 ‘세라’의 <비스듬한 호>이다. 이는 미학적으로 전혀 손색없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지만, 광장을 양분하여 시민들의 공간 사용을 불편하게 하였고 난해한 미학으로 주눅 들게 한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미술계 일각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철거되었다.

- ① 작가는 대중의 공간 활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겠군.
- ② 공공 미술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중에게 외면당한 사례로군.
- ④ 작품을 선정, 설치한 의사 결정자는 작가의 명성을 중시했겠군.
- ⑤ 작가는 작품 창작 시 수용자를 고려하여 미학적 측면을 강조했겠군.

50.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어제 그 사람과 씨름을 몇 바탕 했다.
- ② 그녀는 아이에게 주기 위해 바탕이 고운 옷감을 골랐다.
- ③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
- ④ 어른들은 예의범절로 그 사람의 바탕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아이는 하늘색 크레용으로 바탕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